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 복 관

“ 업계의 공통사항에 대한 구심적 역할 최선 ”

1. 신년을 맞아 귀 단체의 역할 및 비전은?

작년에는 40여년간 지속해 왔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갑작스런 폐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조합의 존재의 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은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안주하던 사고의 틀을 깨고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더 넓은 세상의 자유공간에 나온 기분입니다.

신년에는 조합이 업계의 판매, 구매, 품질, 노사 등 공동사항의 구심점 역할에 최대한 힘쓸 것이며 첫째 모든 공공입찰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만들어 대기업과 대등한 경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둘째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범위를 만들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에는 생산업체만 참여토록 할 것이며, 셋째 시중 유통되는 불량,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조합에 신고센타를 만들어 운영하고 고객이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풍토와 제대로 만든 제품을 제 값 받고 팔 수 있는 업계 풍토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한전의 해외발전소 사업 진출에 맞추어 턴키베이스 수출이 되도록 노력하고 업계가 공동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력산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첫째 전력, 전기 시스템과 자재부품 규격을 국제규격인 IEC로 표준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야 함.

둘째 우리나라는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국내수요는 정체시기인 반면 동남아시아, 중동, 중국, 인도 수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해외진출과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력전기업계의 공동협력 시스템 구축과 유기적인 협조가 요망됩니다.

3. 각 산업간의 영역이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이에 대응해 전기계가 화합해서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첫째 우수한 품질의 전력을 보다 저렴하게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자재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둘째 전형적인 내수기업이었던 한전이 수출다크호스로 변신이 말해 주듯 한전을 중심축으로 전기업계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턴키베이스 수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술

과 자재부품을 함께 수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협회가 해야 할 일과 회원서비스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전기협회가 전기계의 중심이 되고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라며

둘째 전기유관단체의 건의를 취합하고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